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111호 【루계 제24524호】 주제103(2014) 년 4월 21일(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 시 며 조 선 인 민 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앞 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를 돌아보시였다.

장정남동지,서홍찬동지, 한 광상동지, 황병서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김 일 성 사 회 주 의 청 년 동 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동지와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판들,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 보람찬 야영의 나날 을 즐기며 친선의 뉴대를 도 모할수 있게 그 면모를 완전 히 일신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 의 명령에 따라 마식령스키 장건설을 끝낸 즉시 지난해

11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공 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겨울철의 불리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소 옮기시였다.

의 어디大들 경시신에 걸서 글어エ시

영예로운 파업을 빛나게 판철하였다. 다음 국제친선소년회판으로 걸음을 말씀하시였다.

사에 진입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 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오락실,도서실,국제친선실,소년단 주의교양실을 꾸릴데 대하여 지시하였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다고,당의 의도 실,미술실,솜씨전람실,립체률동영화 는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 에 맞게 아이들이 제손으로 밥도 짓고 한 조건속에서도 혁명적군인정신, 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에 판등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정말 마음 하면서 당의 의도가 판철되였다고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을수 있게 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 새로 정중히 모신 아이들속에 계시는 에 든다고,우리의 건축술이 세계적수 하시였다. 림으로써 최고사령판동지께서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보신 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긍지에 넘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구내 하시였다.

에 써붙인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과 장군님,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터친 노래 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고생 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 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 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야외운동장, 실 내체육판, 실내수영판, 야외 물놀이장,야외활쏘기장을 정말 잘 건설했다고, 운동장 의 인공잔디, 관람석의자, 물결모양의 푸른 채양이 조 화를 잘 이룬다고,모든 건 축물들이 말그대로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예술작품같 다고 말씀하시였다.

야영생들이 동식물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수족판과 조 류사,동물박제품진렬실을 특색있게 건설했다고 하시 면서 아이들이 좋아할것이 라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1각, 야영2각의 침실과

료리실습실을 잘 꾸려놓았다고 말씀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경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Н 계속 1 **변 에**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표시하시였다. 체모에 맞을뿐만아니라 요소요소가 우리

의 요구대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보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규모에 있어서나 텔,아이들의 궁전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의 얼굴이 살아나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 송도원의 주변풍치와 어울리게 야영소가 높이 평가하시였다.

훌륭히 개건될수 있은것은 조선인민군 장되였으며 당의 후대관이 비낀 멋쟁이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충정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의 모든 건축물,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호 땀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재부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군인 경애하는 **김정은**통지께서는 동해명승 건설자들과 해당 부문 일군들의 위훈을

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판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야영소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홍완대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인민 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인 뜻을 표시하여 19일 고인의 령전

경애하는 김정은통지의 불후의 전 적 로 작 들 을

나 라 에 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 Ch》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가 인 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의 상세 한 요지를 메히꼬신문 《우니다드 나 씨오날》최근호가 게재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모 급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커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써워나가자》의 전문을 방글 라데슈신문《데일리 포크》1일부가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 Ch》의 상세한 요지를 로므니아사회 주의당이 9일 인터네트홈페지《주체 사상》에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

널 리

Ch》의 상세한 요지를 로므니아사회 주의선택당이 11일 인터네트홈페지 에 올렸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 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리비아 아말 아와 일출판사에서 15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 CF》를 빠나마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10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경 애 하 는 최 고 사 령 판 홀에 들어서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15일과 16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

김정은령도자께서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과 였다.

김정일령도자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립상에 김정은령도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함께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 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훈장보존실을 돌아보시였다.

김 정 은 령 도 자 께 서 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신붕》, NHK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김정일령도자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 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이 나라의 《참고소식》, 국제방송,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로씨야의 이 따르-따쓰통신,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 인터네트 통신 로스발뜨를 비롯한 출판보도물 들, 일본의 교도통신, 《니홍게이자이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조선의 력사에 빛나는 고귀한 한생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백두의 혁명무력이 창건된 뜻깊은 건군절이 다가오고있는 때에 우리 군 대와 인민은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탄생 122돐을 맞이 하고있다.

뜻깊은 이날 천만군민은 강도 일 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수난의 그 세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우리 혁명의 총대 력사에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기신 강반석어머님의 불멸의 공적을 경건 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님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였습니다.》 조국의 해방은 강반석어머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념원이였다.

일찌기 일제의 총칼밑에 략탈 당하고 신음하는 조국강토와 온 민 족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시며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무장투쟁만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고 겨레 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것을 심 장깊이 절감하시였다. 이런 불타는 열망을 언제나 안고계시였기에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김형직선생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을 넘겨주시며 참으로 뜻깊은 혁명의 철리를 새겨주시

혁명투쟁의 길에 몸바쳐나서신 우리 수령님께 김형직선생님께서 남 기신 총이 필요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총을 가지고 아버님께서 못다하신 조국해방의 위업을 꼭 이룩하라고 절절히 당부하시던 강반석어머님의 말씀,

우리 수령님께 강반석어머님께서 하신 그날의 뜻깊은 말씀에는 혁명의 총대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는 크나 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이렇듯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 어쥐시고 성스러운 선군혁명위업수 행의 길에 나서시도록 힘있게 떠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도와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기 를 나르신 강반석어머님의 불굴의 기 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도 잊 지 못하고있다. 그때 방아쇠를 당기 기만 하면 총알이 나가게 되여있는 권총을 가져오신 강반석어머님을 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척 놀

라와하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태연자약하신 모습을 지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 내가 너희 동무들을 보고 재워달라 구 했다. 놈들이 이 함지를 수색하면 답새기자구 말이다. 기껏해야 두놈이 나 세놈쯤 달려들겠지, 접어들면 한 놈이라도 쏘고 나도 죽을 생각이였 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녀성으로서는 실로 드물다고 할만 치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강의한 혁명 정신의 산모범을 새 세대 청년혁명 가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시였다.

지금도 강반석어머님의 고귀한 업적을 더듬어보느라면 우리의 귀전 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 이 들려오는듯싶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반석어머님 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날 에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 음 혁명활동에 참가하시면서 나와 나의 동무들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 와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지금도 안도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할 때 있었던 일이 잊혀지지 않 는다고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 하기 위하여 강반석어머님께서 기울 이신 심혈은 그 얼마이며 걷고걸으 오로지 목적한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 혁명의 길은 또 얼마였던가.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 의 뜻대로 반일부녀회를 조직하시고 광범한 녀성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 민들을 반일의 기치아래 튼튼히 묶 어세우시여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쌓는데 크게 기여하시였다. 병약하신 몸으로 부녀회원들을 조직 동원하시여 군복도 만드시고 군량미 도 마련하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님

긴급임무를 받고 먼길을 떠나는 수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신 강반석어머님의 지극한 정성에 떠받들려 우리의 첫 혁명무력이 자 기의 존재를 알리는 고고성을 온 세 상에 소리높이 울리였다.

주체 2 1 (1 9 3 2)년 4월 2 5일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마침내 그리도 절절히 바라고 기다리시던 반일인민 유격대창건의 날을 맞으시였다.

력사의 그 시각 강반석어머님의 기쁨이 그 얼마나 크셨으랴. 한시라 도 빨리 우리 군대의 모습을 보고싶 으신 심정이였다.

며칠후 토기점골등판에 오르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새 무장력탄생 의 꿈같은 현실앞에서 너무도 감격 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저 끌끌한 우리 군대를 보셨으면 오죽이나 기뻐하시겠니. 부 디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잘 싸워 라. 》라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자신의 한생의 소원이 다 풀리신 듯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유격대원들 의 탄띠며 오각별도 만져보시고 그 들이 메고있는 총들을 오래도록 쓸 어보시였다.

뜻깊은 그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조국해방의 그날을 그려보시며 유격 대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정말 장하구나. 우리 군대가 생겼 으니 이제는 됐다. 왜놈들을 치고 나 라를 꼭 찾아야 한다!》

이 소박한 말씀에는 참으로 숭고 한 인생관이 빛발치고있었다.

혁명을 하자면 총을 잡아야 한다! 총을 잡았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바로 이런 혁명의 진리를 강반석어머님의 말씀에서 더욱 깊이 체득한 우리 혁명의 1세들이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생애의 마지 막시기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인민 의 운명을 생각하시며 그리도 가슴 뜨거운 화폭을 력사에 남기시였다.

남만원정을 앞두고 집에 들리시여 깊은 병에 드신 어머님이 걱정되시 으로부터 무장대오결성과 관련한 여 발걸음을 뗴지 못하시였던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제 떠나보내 면 다시 못 보실수도 있는 사랑하는 아드님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애써 누르시며 나라를 찾겠다고 결심품고 나선 사람이 그렇게도 마음이 여리고 집걱정이 많아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 르겠는가고 하시며 강반석어머님께서

는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구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왜놈들이 나라를 강 탈한지도 벌써 스물두해가 되여오는 데 너두 조선의 사내라면 맘을 크게 먹구 걸음을 크게 뗴야 할게 아니 냐. 네가 장차로도 이 에미걱정때문 에 집으로 찾아올 생각이라면 아예 이 문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아들은 만나지 않겠다. …

위대한 수령님을 남만원정의 길로 떠나보내시던 강반석녀사의 불굴의 모습은 우리 수령님의 심장속에 영 원히 지울수 없는 위대한 어머님의 모습, 거룩한 스승의 모습으로 깊이 깊이 새겨졌다.

피어린 항일의 나날 가정보다 나 라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혁명 을 먼저 생각하신 강반석어머님의 혁명세계를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준엄한 항 일혁명의 길을 과감히 헤치시여 발 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타승하 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 하시였다.

력사의 험난한 풍파를 헤치시며 조 국해방사의 갈피에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기신 강반석어머님의 고귀 한 한생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찬 연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선군 혁명의 길은 오늘 또 한분의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총대를 억 세게 틀어잡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령도따라 선군으로 존엄높은 이 땅우에 통일되고 륭성번영하는 강성 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

인류의 심장속에 간직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협회대표단 단장 겐나지 꿀리꼬 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

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한평생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시며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인민의 운명 을 지켜주신 그분들의 거룩한 존함

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 궁전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주체 의 최고성지로 더욱 빛을 뿌릴것

이다.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축원의 인사 를 드린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는 이렇게 강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시기 위해 기울 이신 김정은동지의 헌신과 로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이의 끝없는 충정의 세계를 깊이 느꼈다.

금수산태양궁전에 모셔진 사진 문헌들과 정중히 보존된 렬차와 승 용차, 배를 비롯한 사적물들, 훈장들 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자주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 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고귀한 한생의 상징이다.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와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며 금수산태양궁전 은 만민의 심장속에 위대한 태양의 집으로, 절세위인들의 영생의 대기념 비로 소중히 간직될것이다.

벨라루씨 2.16명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 단장 따찌 야나 자이쩨바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회수와 로정 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 하기 어려운 위인들의 혁명활동력사 이다,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드린 수많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에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에 대한 인류 의 끝없는 신뢰심이 어려있다고 격

찬하였다. 로씨야 김정일동지로작연구보급촉 진협회대표단 단장 와짐 꾸지민은 금수산태양궁전은 조선의 위인들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되새겨보게 하는 태양의 성지이라고 하면서 이 렇게 계속하였다.

절세의 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김정은동지의 충정에 떠받 들려 태양의 궁전으로 보다 훌륭하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온 세상을 밝히는 주체의 홰불은 영원히 꺼지 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민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 오마르 로뻬스는 조선을 방 문할 때마다 경건한 마음을 안고 찾 군 하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이 이렇 듯 아름다운 공원으로 훌륭히 꾸려 진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위대한 수령들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김정은각하와 조선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잘 알

수 있었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 구소조 위원장 가스 로우렌스 쉘톤 은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터놓 았다.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김일성주석 과 김정일령도자를 뵈오니 그분들께서 우리가 나아갈 투쟁의 길을 가리켜 주시며 뜨겁게 격려해주시는것만 같아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

그리워하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은 만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끝없이

키시여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령도자께 다함없는 경의를 드린다.

어주시였다. 【조선중앙통신】

환희로운 위인칭송의 꽃바다는 래양의 력사를 노래한다

축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공지 H 10金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 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

LICH. »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의 내 조국의 뜻깊은 4월 을 빛나게 장식하며 열여섯번째 로 진행되는 김일성화축전!

해마다 진행되는 태양의 꽃축 전이지만 올해의 분위기는 참으 로 류다르다.

최고인민회의 제 1 3기 제 1 차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 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 이 높이 추대한 크나큰 영광과 환희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 는 속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이번 축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 의 가슴속에 대를 이어 수령복. 태양복을 누리는 긍지와 자부심 을 더욱 북돋아주고있으며 주체 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에서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 를 더 높이 떨쳐갈 불타는 결의 를 가다듬게 하고있다.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그러나 제 1 6차 김일성화축 전장에 펼쳐진 황홀경은 자연의 꽃의 의미를 초월하는 숭엄하고 도 뜨거운 세계에로 우리를 끝

없이 이끌어갔다. 《이번 축전의 주제는 〈인류 의 영원한 태양을 우러러 만발 한 불멸의 꽃 김일성화〉입니 다. 이러한 주제에 맞게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과학기술적으로 훌륭히 피워 전시하고 조형예술 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한것으

를 띠고있습니다.》 축전장에서 만난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를 먼저 중앙전시홀로 이끌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 신다는 철석의 신념이 비껴흐르 는 꽃바구니며 절세위인들의 손 길따라 백승만을 펼쳐온 긍지높 은 력사를 되새겨보게 하는 전 시대의 여러 형상요소들…

바라볼수록 조선혁명의 영광 스러운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억 년 드놀지 않는 초석을 마련해주 신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슴가득 차올라 참판자들은 인민무력부와 외무 성의 전시대앞을 쉬이 뜨지 못 하고있었다.

축전장의 전시대들마다 아름 답게 만발한 태양의 꽃과 더불 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어주신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궤 도를 따라 전진해온 현대조선의 새 력사를 긍지높이 전하고있어 돌아볼수록 가슴뿌듯해졌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와 최대일소속부대를 비롯한 무력기관 전시대들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내 놓으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 의 빛발아래 백승을 떨쳐온 선 군조선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비 껴흐르고있었는가 하면 농업 성,경공업성 등의 전시대들에 는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경제강국건설과 사회 주의문명국건설에 박차를 가하 고있는 해당 단위 일군들과 종

잘 반영되여있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총련 중앙상임위원회전시대 역시 참 관자들을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 게 하였다.

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때 로부터 20돐이 되는 해이다. 되새겨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혈전의 나날 백두밀영에서 등잔불에 비쳐보신 우리 나라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하나로 이어진 조선지도였지 결 코 두동강이 난 조선지도가 아 니였다. 한평생 오로지 통일된 조 선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태양의 꽃 김일성화로 조선지도를 형상한 조국평화통 일위원회전시대였다.

해외동포자녀들을 품에 안아주 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 이 모셔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전시대는 또 얼마나 깊은 감동 을 자아내는것인가. 몸은 비록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 이역땅에 있어도 태양민족의 자 손으로 긍지높이 살아가는 총련 의 새 세대들의 름름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대에 아름답게 피

> 정녕 그 모든 화폭들은 외세 가 강요한 아픔을 하루빨리 끝 장내고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 국가를 일떠세울 겨레의 의지를 더욱 북돋아주고있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여있는 김일성화…

축전장에도 우리 나라 주재 인 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을 비롯 한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부들, 외국의 친선 및 현대성단 체들, 인사들의 지성이 뜨겁게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비껴흐르고있었다. 태여난 경위 도 가슴뜨겁고 국경을 초월하여 온 세상에 만발해가는 력사도 숭엄한 불멸의 꽃 김일성화

> 현설경, 현림경을 비롯한 학 샛들과 근로자들의 다함없는 충 정의 마음과 더불어 활짝 피여 난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여있는 개인전시대들도 축전장을 이채 롭게 장식하고있었다.

축전장을 돌아볼수록 우리의 가슴속에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 야말로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상징하는 꽃이 아니라 절세위인 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태양민족 의 존엄과 긍지를 온 세상에 소 리쳐 전하는 선군조선의 국보라 는 생각이 더욱 뜨겁게 자리잡

> 글 본사기자 박옥경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전시대앞에서 본 《꽃전문가》 해주는 한 녀성의 모습이 눈 주체의 붉은 노을을 배경 으로 하여 200여상의

아름다운 김일성화로 꽃바구 니를 형상하고 전시대의 맨 아래부분에 무상치료,예방 의학이라는 글발을 새겨놓은 보건성전시대앞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활짝 핀 김일성화를 바라보는 참판 자들에게 전시대에 깃든 사 연과 함께 꽃의 생물학적특 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

락원지도국전시대에 활짝 피여있는 김일성화들이 류달 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진분홍보라색꽃잎을 한껏 펼 치며 하나와 같이 싱싱하게 피 여있는 태양의 꽃들마다에는 지도국의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원예사 최은옥동무의

CI

0

이 새겨져있었다. 알고보니 최은옥동무는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3 0 여년간을 불멸의 꽃을 피우는데 모든것을 바쳐온 원예사였다. 그 나날에 그는 풍부한 경험도 쌓았다. 하지 만 그는 언제나 바치는 지성

남모르는 헌신의 낮과 밤들

길을 끌었다. 꽃전문가일것 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알고 보니 그는 보건성 부원인 안 경희동무였다.

해마다 태양의 꽃축전장 에 나오면서 그는 김일성화 의 매혹적인 모습앞에 언제나 감탄을 금치 못하군 하였다.그 나날에 그는 김일성화의 생태학적특성과 꽃가꾸기에서 나서는 과학기

술적문제들에 대하여 많은것 을 알게 되였다.이제는 전 문가들 못지 않은 그의 해박 한 지식과 김일성화축전준비 사업에 기울인 불같은 열정 에 한생을 꽃과 함께 살아오 는 원예사 박광근동무도 놀 랄 때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태양의 꽃에 바쳐가는 이 런 충정의 마음과 마음들이 뜨겁게 슴배여있는 보건성전 시대는 축전장을 보다 이채

롭게 장식하고있다.

불멸의 꽃과 함께 30여년

이 모자라는것 같아 더욱 피 타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정열가였다. 이번 축전준비 를 위해서도 그는 낮과 밤을 불같이 이어갔다. 매일 꽃들 의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불멸의 꽃을 더 활 짝 피우기 위해 그가 기울여 온 정성은 이만저만이 아니

였다. 김일성화와 함께 마음은 언제나 4월에 사는 그의 열 정에는 한계가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락원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그는 한상한상의 불멸의 꽃 에 자기의 심혼을 다 쏟아부 었다.

전시대앞에서 우리와 만 난 최은옥동무는 이렇게 말 하였다.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우리모두의 마음이 불멸의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웠고 4월의 축전장을 빛나게 장 식할수 있었습니다.》

마 음 .

한 아름다운 불멸의 꽃들과 잘 형상된 모형 하나하나에 는 태양의 꽃축전을 훌륭하 게 장식하기 위하여 모든 지 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비껴있다.

어떻게 하면 제 1 6 차 김일성화축전장에 더욱 환희 로운 태양의 꽃바다를 펼치

한 모 경흥지도국전시대에 만발 겠는가 하는 하나의 마음으 로 낮과 밤을 이어온 이들이

였다.

태양의 꽃재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 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 어주며 온실종업원들이 꽃재 배를 잘할수 있도록 적극 떠 밀어준 지도국의 책임일군 들, 한겨울의 불리한 일기조 건으로 꽃재배에 난관이 조

성되였을 때 긴장한 전투를 벌려가며 김일성화를 훌륭히 키워낸 온실의 박순남, 박정 임, 림창환, 원광철, 리만선동 무들,불멸의 꽃을 훌륭하게 키워달라며 아낌없는 성의를 바친 일군들과 종업원들…

이런 뜨거운 마음과 열정 이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자양 분이 되여 올해에 수백상의 태양의 꽃들이 류달리 싱싱 하게 피여났다.

주 령 봉

마음을 담 아 티없이

전 시 대 봉 사 총

한 전시대들과 더불어 꽃퍼난 아 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었 다. 그중에서 인민봉사총국 국장 정정환동무가 들려준 전시대형 성도안창작과정에 있었던 이야 기도 우리의 감동을 자아냈다. 태양의 꽃축전을 몇달 앞둔 어느날 인민봉사총국 일군의 방

이번 축전장에서 우리는 황홀 에서는 협의회가 진지하게 진행

이미 여러차례의 협의회가 있 었고 좋은 전시대형성도안들이 나왔었다. 그렇지만 일군들은 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이번 축전장에 더 욱 뜨겁게 펼쳐놓을 마음으로

일군들은 전시대의 중심에 뗘오 르는 태양과 함께 만경대고향집 을 형상하고 태양의 꽃바다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름지 어주신 목란꽃송이들을 새겨넣 은 어느 한 도안에서 눈길을 뗴

또다시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로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신



우리 수령님의 한생이 뜨겁게 어 려오는 조선의 꽃이 아니던가.

많은 토론끝에 일군들은 이 도안을 더욱 완성하면서 전시대 아래부분에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령도아래 노래 《조국찬가》 와 더불어 약동하는 내 조국의 모습을 담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인민봉사사 업에서 혁신을 일으켜갈 총국일 군들과 종업원들의 신념과 의기 도 깊이있게 반영한 전시대형성 도안이 완성되게 되였다.

일군들은 전시대를 제작하는 과정에 좌우부분에 김일성화가 아름답게 피여있는 특색있는 큰 화분 두개를 놓아 전시대를 보다 이채롭게 장식할수 있게 하였다.

300여상의 아름다운 김일성화가 전시되여있는 인민 봉사총국전시대에는 이렇듯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 의 정을 안고 사는 총국일군들 과 종업원들의 티없이 맑고 순 결한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옥 별

총련중앙상임위원 회전시대와 조국평 화통일위원회전시대

겨레의 심장속에 피는 래양의

에는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긍지 와 자부심을 안고 태양절을 맞 은 온 겨레의 기쁨과 감격이 끝 없이 흐르고있다.

재일조선학생들속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였으며 200여 상의 활짝 핀 김일성화와 이채 로운 보조화초 등으로 황홀경 을 펼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전 시대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의 념원이 현실로 꽃퍼나는 내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가

모진 광풍이 불어와도 언제나 어머니조국에로 달리는 총련 동포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 이 훌륭히 형상되여있어 참판 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

고있다. 총련을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 외교포조직으로 더욱 억세게 강 화발전시켜나갈 동포들의 변함 없는 신념의 맹세가 뜨겁게 어 려있는 전시대에서 쉬이 발걸음 을 뗴지 못하는 참판자들에게 해설원은 말하였다.

《비록 이역에서 살지만 우리

들도 불멸의 꽃을 가슴에 안고 사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아들딸들이며 경애하는 원수님 의 한식솔입니다. 우리들은 크나 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힘찬 발 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이 역의 찬바람을 과감히 맞받아 더

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태양의 꽃을 가슴에 안고 사는 동포들의 진정은 조 국평화통일위원회전시대에도 뜨겁게 비껴흐르고있다.

몸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축전

장으로 끝없이 달리 는 열화의 마음을 안고 태양의 꽃에 지성을 바쳐온 재중조선인총련 합회,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등

진정 해외의 그 어디에서 살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 들어 조국인민들과 뜻과 발걸 음을 함께 하는 온 겨레의 의지 가 그대로 비껴있어 전시대들 은 참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있다.

의 일군들과 동포들…

본사기자

어버이수령님을 인류의 영원한 태양 으로 높이 받들어

슴뜨겁게 안겨오고있다. 또한

모시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열화같은 마음이 인도네시아공 화국대사관전시대, 외교단사업 총국전시대, 국가관광총국전시 대,대외문화련락위원회전시 대, 조선태권도위원회전시대 등

에서도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태양의 꽃축 전에 참가하여 위인칭송의 마음 을 뜨겁게 펼쳐온 인도네시아공 화국대사관 성원들은 이번에도 아름다운 김일성화를 안고 축전

태양의 꽃이 만발한 꽃바구 니를 받들어올리는 세계인민들

의 환희에 찬 모습을 형상한 조 각상이 중심에 놓여있는 외교

장으로 달려왔다.

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들, 무판 단성원들의 마음도 뜨겁게 깃들

단사업총국전시대에는 태양의 꽃에 바쳐가는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지성이 그대로 비껴흐 르고있다. 외교단사업총국의 한 일군은

300여상의 아름다운 김일성화 절감할수 있다. 가 활짝 핀 전시대에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인 쭘말리 싸이냐쏜과 주조 외

어있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

이들만이 아니다.세월이 갈 수록 더해만 가는 어버이수령님 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 함없는 칭송의 마음은 대외문화 련락위원회전시대에서도 더욱

몽골 김일성유치원과 뜌니지 조선친선협회, 오스트랄리아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

교류협회 등 수많은 외국의 친선 및 련대 성단체들과 진보적 인사들이 이번 축전에 깊은 관심 을 돌리고 축전장을 이채롭게 단 장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축전장에는 국제태권도련맹, 아시아태권도련맹, 영국고려려 행사 등의 명의로 된 태양의 꽃 들도 활짝 피여나 황홀경을 펼 치고있다. 진정 인류의 영원한 태양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 없는 그리움, 흠모의 정과 더불 어 아름다운 김일성화 만발하여 더욱 환희로운 4월이다.

한편의 동시가 세기를 이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충정의 메아리로 울리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

어버이장군님께서 60년전 인 주체43(1954)년 4월 2 1 일에 몸소 지으신 이 동시 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학생 소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 끝없는 충정의 송가로 길

이 전해지고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자면 혁명적수령관을 세워야 합 LICH.»

어버이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을 창작하신 때로부터 60돐이 되 는 뜻깊은 날을 맞으며 우리는 절세위인의 거룩한 자욱이 어린 평양제4소학교의 교원,학생들 과 자리를 같이하였다.

기자:평양제 4 소학교의 교 원, 학생들이 얼마전 충정의 글 작품집 《영원히 울려퍼지는 〈우리 교실〉의 메아리》를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려 기쁨을 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

교장 공훈교원 길금순:정말 꿈만 같다. 선군령도의 나날을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 데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학교 교원, 학생들의 충정 의 마음이 어린 글작품집을 몸 소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을 말부터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

면 좋을지 모르겠다.

새겨주시였다. 교원 김영숙: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영광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그렇 고 우리 교육자들도 남다른 긍 지를 간직하고있다. 그런데 이 번에 또다시 크나큰 사랑과 믿 음을 받아안았으니 이 영광과 기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했으

세 대 를

기자:어버이장군님을 그리며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이 학교 교 원, 학생들의 절절한 심정과 결 의가 담겨져있어 글작품집은 보 면 볼수록 깊은 감동을 준다.

길금순:학교에서는 해마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교원,학생 들모두가 어버이장군님을 그리 는 간절한 마음을 안고 글짓기 발표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있다. 글짓기발표모임을 할 때면 교원, 학생들은 물론 학부 형들까지 참가하군 하는데 온 학교강당이 뜨거운 격정과 흥분 으로 설레이군 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리 교실》을 몸소 지으신 6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어버이장군님 을 못 잊어하는 교원, 학생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은 글작품집 을 완성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한마음으로 지난해

나갔다. 교원, 학생들모두가 떨쳐나서 자기들의 심정을 담은 동요,동 시를 비롯한 시작품들을 창작하 였는데 그 열의가 정말 대단하였 다. 그중에서 60여편의 시작품

들을 고르고골라 충정의 글작품

제

집을 훌륭히 완성할수 있었다. 교원 김옥경:많은 교원들이 학생들의 작품도 지도하면서 작 품창작에 열정을 기울여 훌륭한 시들을 내놓을수 있었다. 이 과 정에 교장선생님은 시 《내 한 생 읊으리라》를 창작하였다. 시에는 온 나라를 크나큰 우리 교실로 꾸려주시고 충정의 대 오,일심의 대오를 키워주신 김정일대원수님의 그 뜻을 전하 며 생의 끝까지 위대한 충정의 노래인 동시 《우리 교실》을 읊고읊으리라는 결의를 담았 다. 리진주동무는 날이 가고 해 가 가도 더해만 가는 그리움은 우리 장군님께서 이 교정에 들 어서시던 그 첫 자욱에서 시작 되였으며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김정일장군님의 력사로 길이 빛 날 영광의 이 교정과 함께 그리 움은 영원하다는 내용으로 시 《그리움의 60년이여》를 창 작하게 되였다. 리금옥동무는 시 《나의 꿈, 나의 소원》에서

교육자의 꿈과 소원이 무엇인가

를 내면세계와 체험을 통하여

깊이있게 파고들면서 그 꿈과

소원을 안고 평양제4소학교의

학 교육자답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받드는 교원혁명가로 한생 을 빛내일 결의를 잘 보여주

소

亚

교원 리금옥:김옥경동무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사랑, 교육 자들의 정을 다 합친대도 비길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품을 노래하면서 원수님 계시 여 우리 아이들의 꿈은 더 아름 답고 내 나라의 하늘은 더 푸르 고 내 조국의 미래는 더 창창하 다는 확고한 신념, 하늘땅이 열 백번 변한대도 김정은원수님만 을 믿고 따르려는 우리 교육자 들의 결의를 담은 시 《원수님 만 믿는다》를 내놓아 글작품 집의 마감을 훌륭히 장식할수

있었다. 교원 리진주:이뿐이 아니 다.우리 학생들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모범 을 따라배워갈 뜨겁고도 진실한 충정의 마음을 동요, 동시들에 잘 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마식령스키장에서 즐 거운 나날을 보내던 이야기를 가지고 마식령에 태여난 꼬마스 키부대의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 한 동시도 그렇고 동심이 반영 되면서도 선군시대 학생소년들 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많이 내놓았다.

학생 분영정:저는 동시 《1분단위원장 그 모범 따라》를 지었다.시에서는

亚 1 분단위원장으로 사업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뒤를 이어 오늘은 제가 1분단위원장 이 된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정일대원수님의 모범 을 따라 우리 분단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제 1 분단, 모범 분단으로 만들어갈 결의를 시에

담았다. 학생 박문희:저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몸소 지으 신 동시 《우리 교실》을 매일 읊으며 공부도 잘하고 좋은일 하기도 잘하며 5점꽃을 곱게 피워 영광의 학교를 빛내여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가지 고 동시 《동시와 약속해요》 를 지었다.

기자:정말 교원들과 학생들 의 충정의 마음이 그대로 어려 있어 글작품집의 시 한편한편을 감동없이 볼수가 없다. 지난 기 간 학교에서 영광의 학교답게 절세위인들에 대한 위대성교양 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교수교양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 였다는것을 이 글작품집을 놓고 서도 잘 알수 있다.

6 0년전 1 0대의 어리신 나이 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숭고 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에 대한 충정 의 세계가 맥박치고 사상예술적 으로 완벽한 동시 **《우리 교실》** 을 명작으로 훌륭히 창작하시여

학 우리모두가 삶의 좌우명으로 삼 아야 할 지침을 마련해주시고 주체문학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앞에는 원수님초상화 환하게

모셔져있는 우리 교실에 대한 형상으로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배움의 꿈도 있고 우리 의 미래도 있다는 진리, 온 나라 가 크나큰 교실이고 이것은 곧 수령님의 품이라는 심오한 철학 적원리를 가슴마다에 새겨주며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 새 나라의 참된 일군이 될 신념 의 맹세가 비낀 위대한 장군님 의 불후의 고전적명작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영원한 충정의

려퍼지고 있다. 김영숙: 6 0 년 전 리 신 이 에 위 대 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길금순:어버이장군님께서는 김정일애국 주의의 산 모범으로 우리 학생 들을 교육 교양하여 모두가 앞

조선의 기둥으로 자라나도록 적 극 이끌어주겠다.

김옥경:경애하는 원수님의 뜻대로 우리 후대들을 백두산을 그대로 닮고 백두의 혈통을 꿋 꿋이 이어가는 백두산대국의 아 들딸들로 키워가는데 교육자로 서의 모든것을 다 바치겠다.

길금순:불후의 고전적 명작 《우리 교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잘 받들 어모시라고 하시는 절절한 당부 로 안겨온다. 교육자들모두가 학생들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티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앞날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나가며 영광의 교정을 더욱 빛내여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충정의 글작품집에도 있듯이 오 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열어주신 전반적 1 1 년제의무교육의 꽃 대문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큰 사랑 더해져 더 넓어진 전반적 1 2 년제의무교육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판, 교육판을 받들 어 전반적 1 2년제의무교육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데 있는 지혜와 정력을 깡그리 바쳐나가겠다.

기자:경애하는 원수님의 크 나큰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교육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공 로 혁



새로운 시대속도를 창조해간다 조선의 힘,조선의 기상 떨치며

궏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서!

군 인

불과 4 0여일,

많은것이 달라졌다. 하부망공사와 기초공사가 한 창이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1 0호동은 만장을 가까이하고 있으며 여러 호동의 살림집들이 승벽내기로 우줄우줄 일뗘서고 있다. 그야말로 기적같은 건설

속도가 창조되고있다. 하늘에서 내렸는가 땅에서 솟

《단숨에》, 《폭풍치라》라 는 글발과 함께 시간을 다투며 키를 솟구는 살림집들,

과학자들을 위한 새로운 거 리, 리상거리가 보란듯이 펼쳐 지고있는 이곳 건설장의 한복판 에 서면 광명한 미래를 안아오 는 조국의 숨결이 들려온다.조 선의 힘,조선의 기상,조선의 지향이 무엇인가를 높뛰는 심장 의 박동으로 새겨안을수 있다.

우리 과학자들이 살게 될 보 금자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 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의 하늘같은 사랑이 이 집을 뗘 받들고있다고 건설자들은 목메 여 말하고있다.

선 인

민 군

적 창조!

그렇다. 위성과학자거리건설 장에 타번지는 기적의 열풍은 위대한 그 사랑, 그 뜻을 심장에 새겨안은 건설자들의 심장의 열 기가 내뿜는 열풍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건설구상을 실현하 는 길에 자기의 피와 땀을 아 낌없이 바쳐 조선은 한다면 기어이 한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슬기와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한 인민군군인 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선군 시대의 영웅들이고 우리 당의 보배들입니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전사는 그것을 어 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지나온 투쟁의 나날에 실천으로 보여준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이 위 성과학자거리건설에서도 날에 날마다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 해나가고있다.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

하부망공사를 맡은 한성일소 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일곱달 이 걸린다던 토량처리를 한달도 안되는 25일동안에 해제끼고 우수망, 하수망 등 하부구조건 설을 단 한달 남짓한 기간에 기 본적으로 완성, 골조공사가 시 작된 첫 시기 1호동에서 하루 평균 3. 5세대로부터 10여일만 에는 10여세대의 살림집 건설, 공사장적으로 매일 수십세대의 살림집골조공사를 완성하는 기

놀라운 속도이다. 하다면 우리의 병사들은 과연 무슨 힘으로 이런 놀라운 건설속

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인가. 정밀휘틀시공방법을 도입하



건 설 자

있다.

금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정밀휘틀시공방법은 세계적으

로 앞선 공법의 하나로 되고있

다. 2m 4 0cm나 되는 휘틀로

한개 층의 골조를 단번에 세우는

이 시공방법은 반복시공을 없애

고 로력랑비를 줄일뿐아니라 공

사의 질을 담보하는 앞선 공법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 기재준비가

힘들고 기술공법이 어려운것으로

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저어하는

공법을 김금철소속부대 군인건설

자들은 스스럼없이 맡아나섰다.

최고사령판동지의 명령을 제

날자에 무조건 판철하기 위하여

서는 대담하게 앞선 공법을 받

아들여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으

로 마음을 합친 이들이였다.

이 미끈하게 올라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수행에 대한 투철하고 절대 적인 정신이 바로 이런 담력도 지혜도 낳은것이다.

들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벽면

이곳 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즐겨 외우는 파도식공격, 이 말속에도 군인건설자들의 비상한 정신 력, 결사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용접작업, 철근조립, 휘틀조 립, 몰탈작업 등 모든 공정마다 에서 병사들은 맡은 작업을 전 문화하며 작업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교대가 끝나면 다음교 대가 이어가며 순간도 건설을 중단하지 않고있는 이 파도식공 격으로 건설장은 낮이나 밤이나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

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맡고있는

다층살림집건설장에 가보면 립

체전,기계화전의 장쾌한 광경

련이어 들어서는 대형화물자동

차들, 1 0여m높이의 살림집골

조작업장으로 혼합물바가지를

쉴새없이 물어올리는 기중기들

과 더불어 부대가 맡은 두개 호

동의 다층살림집이 경쟁적으로

적재함마다 물동을 가득 싣고

을 볼수 있다.

5호동에서 예상치 않게 여러 시간 정전된적이 있었다.

뜻밖의 정황이였지만 김금철 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순간 도 작업을 중단할수 없었다. 한 부소대장이 불뭉치를 만들었 다. 뒤이어 불뭉치가 하나둘 늘 어나 작업장은 훤하게 밝아

이들은 맡은 한개 층에 대한 골조공사를 기어이 완성하고 새 날을 맞았다.

그 어떤 난관이나 조건, 정황속 에서도 주저나 동요, 굴함을 모르 는것이 바로 우리의 병사들이다. 3일에 한층씩 올리던 건설속 도를 돌파하며 며칠후에는 만장 을 덮을 기세로 전진하고있는

강명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의 투쟁기풍도 자랑할만 하다. 이들은 기둥별, 방별, 보별로 휘틀을 규격화하고 건축의 조형 미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나 가고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건축물 로 완성하기 위해 하부구조물건 설에 티없이 깨끗한 병사의 량 심을 묻어온 한성일소속부대 군 인건설자들도 있다.

손으로 한알한알의 자갈을 규정 대로 까고 우수관을 런결하면서 1 cm의 편차도 허용하지 않은 이 들의 보이지 않는 위훈은 위성과 학자거리건설의 초석이 되였다. 당이 정해준 시간에, 당이 요

구하는 높이에서! 이런 신념, 이런 의지를 안고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해나가 고있는 우리의 미더운 병사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충정과 의리로 심장이 고 동치는 한 못해낼 일이 없고 안 아오지 못할 기적이 없다는것을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은 위 성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뜻깊은 태양절을 하루 모 앞두고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장에서 살림집골조 공사완공의 첫 승전고가 울려퍼졌다.

조선인민내무군 김영 남소속부대의 지휘관들 과 군인들이 10호동살 림집 3현관골조공사를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당 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 내고야마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자랑스럽게 과시

하였다. 지상골조콩크리트치 기를 시작하여 26일만 에 7층살림집골조공사 를 끝내고 현장지휘부에 서 높이 세운 공사일정 을 한달반이나 앞당긴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애 하

○▶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지 않고 기 어이 해내고이비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 랑스러운 전통이며 투

김 정 은 동 지 께 서 는

쟁기풍이다. » 위성과학자거리건설 장적으로 제일먼저 살림 집골조공사를 완공하는 그날 마지막란간벽혼합 물이 쏟아지는 7층살림 집 만장에서 우리는

부대지휘관인 리형국동무를 만

났다. 《비결이란게 딴게 있습니 까. 이 보람찬 건설장에 불러주 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우리 부대에 대한 크나 큰 믿음으로 뼈와 살에 새기고 장병들 누구나 떨쳐나섰기때문

입니다.》 지난 2월 하순 가설건물공사 를 지휘하던 부대의 책임일군은 군인건설자들을 띄여보다가 놀 대원들이 달려와 그의 장화목을 라지 않을수 없었다. 언뜻 스치 는 한 군관의 모습이 눈에 걸렸 던것이다. 병원에 입원중인 그

조선인민내무군 김영남소속부대에서

가 어떻게… 다급히 불러세워 질책하는 책임일군에게 그는 이렇게 말

하였다. 《최고사령판동지의 명령 관철로 부글부글 들끓는 이 건 설장을 놓고 구분대장인 제가 어떻게 침대에 누워있을수 있 습니까.》

이런 말을 남기고 구분대장 유광철동무는 다시 군인들속에 뛰여들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 전의 실천투쟁속에서 삶의 보람 과 영예를 찾는 지휘관, 건설전 투현장에서 치료를 받으며 전투 지휘를 하는 그의 모습은 그대 로 열백마디의 말을 대신하여 전투원들을 고무추동하였다. 지 휘관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 지 이렇게 한마음한뜻으로 일뗘 섰기에 구분대는 가설물전개, 하부구조굥사, 살림집기초굴착 에 이어 기초 및 골조콩크리트 치기에서도 언제나 앞자리를 차 지하였다.

부대에는 온 건설장적으로 소 문난 녀성소대가 있다.

자 기 들 도 경 애 하 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 떨쳐나선 당당한 군인건설자라 는 자각을 안고 녀성특유의 이 악성으로 언제나 맡겨진 과제 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소대장 김복미동무와 녀성소대원들, 골 조콩크리트치기에서 그들이 맡 아나선 전투과제는 혼합물보장 이였다.

벽체콩크리트치기가 한창이 던 지난 3월말이였다.

걸싼 일솜씨로 모래,세멘트 를 보장하며 종일 혼합기의 만 가동을 지켜가던 분대장 조성아 동무는 전투가 끝나서야 발의 감촉이 이상한감을 느꼈다. 분

째고보니 장화안에 들어간 혼합 물로 하여 발이 화상을 입었던 것이다.

혁신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 느라 화상입은것도 미처 알아 차릴새 없었던 분대장에 대한 응급처치가 진행되고 소대장은 그에게 며칠간 휴식을 선포하 였다. 그러나 다음날 오후 조성 아분대장이 혼합기옆에 나타났 다. 여기 전투장에서 혼합기의 동음을 들어야 마음이 편하다며 일손을 거들어주는 그의 모습은 녀성소대원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골조콩크리트치기 전기간 측 량사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한 황 정철소속구분대 초기복무사관 인 박정철동무, 자기가 점 하 나, 선 하나라도 잘못 측량하면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서는 과학자살림집에 흠이 생길수 있 다는 높은 책임감으로 하여 그 도 고열속에서 공사현장을 결코 떠날수가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자기의 전투 초소를 굳건히 지켜 충정의 구 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는 이런 마음들이 부대의 전투기 록장의 갈피마다에 진하게 새 겨져있었다.

골조공사에 필요한 내수합판 전량과 10여t의 철근, 공사용연 유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리정 길, 황철동무를 비롯한 부대책 임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 과 더불어 부대의 전투기록장에 는 오늘도 자랑찬 위훈이 시간 마다 기록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안겨 주신 별동대, 힘있는 부대, 공로 있는 부대라는 자랑스러운 칭호 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의 맨 앞장에서 달려나 가는 이곳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 에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조선인민군 강명환소속부대에서-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살림집골조공사장에도 비약의

불바람이 일고있다. 호동적으로

제일먼저 층막콩크리트치기를

끝낸 승리대외건설자양성사업

소의 차현남작업반원들이 일제

히 스키프의 길잡이대를 새로운

위치로 옮기기 위한 전투에 달

직장장 홍의섭동무의 지휘에

따라 기중기가 천천히 일정한

높이까지 길잡이대를 들어올리

자 여러명이 달라붙어 그것을

킨다.계명철동무가 날랜 동작

라붙는다.

우리는 지금 대외건설지도국

아래 여러 단위 건설자들이 말 은 12호동살림집골조공사장 에 있다. 봄바람에 펄럭이는 《결사옹

위》,《결사관철》 등의 글발 이 새겨진 붉은 기폭들과 호동 을 빙 둘러싼 8대의 혼합기에 서 울려퍼지는 만가동의 동음이 살림집골조공사에서 이룩되고 있는 혁신적성과를 그대로 전해 주고있다.

땅우에서는 지금 팔조팡사에 필요한 질좋은 혼합물을 더 많

이 . 더 빨리 생산보장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가 벌어 지고있다. 맞 들이를 잡은

건 설 자 들 이

12호동살림집건설장에서 이곳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쉬임없이 달린다. 날라온 세멘 으로 붉은 기발이 나붓기는 길

순차적으로 혼합기안으로 들어 간다. 잠시후 혼합기에서 잘 이겨진

트와 혼석,물이 비례에 맞게

몰랄이 쏟아져나와 잠간사이에 스키프를 가득 채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 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러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

선입니다.》 공사장을 들었다놓는 경제선 동의 북소리와 더불어 울려퍼지 는 한 일군의 힘찬 목소리가 건

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 돋아준다. -위성과학자거리건설을 최상 의 수준에서 완공하여 세상을

놀래우는 새로운 시대속도를 창 어느덧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잡이대우에 올라가 기중기의 쇠 바줄고리를 벗겨낸다.

련이어 새로운 층의 콩크리트 치기준비가 벌어지는 속에 다른 켠에서는 마지막벽체휘틀조립 이 최절정을 이룬다.

큼직한 두개의 대형휘틀의 간 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나사 로 든든히 고정시키는 김만성, 한남철, 라혁철, 리만성동무들 을 미덥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홍의섭동무가 말한다.

《살림집조립을 시작하면서 처음 받아들인 휘틀이지만 짧 은 기간에 누구나 그 기술적원 리를 원만히 파악하여 시공속 도와 질보장에서 큰 덕을 보고 있습니다.》

기술학습의 날뿐아니라 짬시 간에도 새로운 공법을 하루빨리 습득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 고있는 건설자들의 모습이 더욱

다른 단위 건설자들의 기세 도 간단치 않다. 맡은 골조공사 를 누가 먼저 끝내겠는지는 아 직은 두고보아야 한다는 자신 만만한 배심이 그들의 얼굴마 다에 어려있다. 기중기의 긴 팔 에 매달린 혼합물바가지에서 몰랄이 벽체휘틀우에 가로놓인 철판에 와르르 쏟아져내린다. 여러개의 삽날이 부딪치며 불 꽃을 튕긴다. 뒤이어 울리는 진

이 쭉쭉 그어진다.

숨결을 더해준다.

살림집지구를 에돌며 새로 뻗

어간 철길을 따라 각지의 대고

조전투장을 향해 기세차게 내달

리는 화물수송렬차들의 기적소

리가 불꽃튀는 전투장의 억센

전선시간이 흐르고있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와하지 않는 적대세

력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의 하

루하루, 사회주의수호전의 낮과

밤이 흐르는 속에 공사완공의

분과 초를 다투는 포성없는

하늘로 치솟고있다.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가기 위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장병들은 마식령 차고도 영예 스키장건설뿐아니라 당이 말 로운 투쟁의 겨준 모든 중요대상건설과 앞장에서 힘 도, 시, 군들을 꾸려주기 위한 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 으켜나가야 한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 고 이곳 건설장으로 달려온 부

보여주듯 경쟁도표판에 붉은 줄 대군인건설자들앞에 나선 과업 골조공사장의 한복판에 서있 은 실로 방대하였다. 는 우리의 눈앞에 곳곳마다에 17호동과 18호동의 덩지큰 서 하늘로 쳐들린 기중기팔들, 다층살림집을 건설하는것과 동 붉은기의 바다를 펼친 위성과 학자거리건설장의 전경이 안겨

시에 근 2만m²의 넓은 부지면 적을 차지하는 종합공원과 소학 교, 체육관을 새로 일뗘세워야 하는 실로 간단치 않은 공사과 제가 이들앞에 나섰던것이였 다. 더우기 부대가 맡은 공사대 상들이 지대가 낮은 곳에 자리 잡은것으로 하여 성토작업에 필 요한 토량만도 20만여㎡.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점 령하자면 하루 8천m³의 토량을 운반하여야 하였다. 이것은 대 ラ 형화물자동차로 근 1 000대분 에 해당되는 량이였다. 보통의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서는 어림 도 없었다.

그러나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

신

혁

립체전, 기계화전으로

조선인민내무군 진광철소속부대에서

인건설자들은 이쯤한 난판에 조 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직 승리, 승리만을 안다. 폭풍치고 우뢰치며 불이 번쩍 단숨에!

지난 시기 은하과학자거리건 설에 참가하여 빛나는 로력적위 훈을 아로새긴 부대의 지휘판들 상한 각오와 자신만만한 투지안 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조국보위에서나 사회주의건설 에서 승리만을 안아온 사상강군의 위력떨치며 맡겨진 공사과제를 와 닥닥 끝내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이 세워진데 이어 격전의 낮과 밤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공사를 최 단기간에 끝내기 위한 기본방도 를 립체전, 기계화전에서 찾고 이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었다. 부대에서는 살림집건설장의

부지면적이 제하되여있는 조건 에서 현장들에 혼합기들을 전개 하지 않았다. 혼합기들을 설치 하고 주변에 모래와 자갈무지를

쌓아놓으면 그만큼 공사를 립체 적으로 진행하는데서나 각종 륜 전기재들의 가동을 보장하는데 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을수 있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여기

에 총력이 집중되였다. 지휘판 들은 혼합물생산기지를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는 한편 륜전기 재들의 가동률을 높여 공사에 필요한 혼합물과 철근,세멘트 를 신속정확히 나르도록 작전 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짜고들 었다. 이와 함께 기본도로와 공 사장을 련결하는 450m의 수

송도로를 새로 번듯하게 건설

울려퍼지게 하였다. 립체전, 기계화전의 세찬 불 길속에 공사시작부터 련일 기적 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

들은 총콩크리트치기량의 40% 에 해당하는 살림집기초구조물건 설을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다.

의 토량을 운반하여 다층살림집 주변의 성토작업을 전부 끝내였 으며 그우에 혼석을 두텁게 깔 아 그 어떤 불리한 날씨조건에 서도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 장할수 있게 하였다.

드세차게 벌어지는 사상공세 로 온 공사장이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조선 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현실》. 《폭풍치며 단숨에!》를 비롯 한 힘있는 표어들이 군인건설자 들의 심장마다에 새로운 위훈창

조의 불을 달아주는 속에 살림 집골조공사성과가 날을 따라 확 대되고있다.

18호동의 살림집건설을 맡은 리영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이 불가능을 모르는 완강한 공 격정신으로 련일 새 기준, 새 기 록을 세워나갔다. 특히 장용철 소속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지난 4월 7일 한개 층의 살림 집골조공사를 단 60시간동안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부대를 비롯한 여러 부대의 군 인건설자들도 천년책임, 만년보 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새로운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면 서 일정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

해나가고있다. 부대에서는 살림집골조공사 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데 따 라 철근가공과 조립,휘틀제작 등 시공의 모든 공정들을 전문 화하여 공사속도와 질을 높이는

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류성국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해벽두부터 힘찬 돌격전을 벌려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 한 경성애자공장의 일군들과 로 동자들이 더 많은 애자와 전기 설비를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

칩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한개 직장씩 맡고 내려가 로동 자, 기술자들이 높은 생산성과로 공장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 다. 생산계획수행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주조직장에 나간

공 장

일군들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 면서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 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전기설비생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 지는 속에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1 애자직장에서는 각종 저압 애자를 비롯하여 10여만개의 애자를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2애자직 장의 로동자들은 건조로들의 정 상가동을 보장하여 애자건조능 력을 훨씬 높이고 각종 성형기 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높이 세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적

극 노력하고있다. 명간규산염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원료보장이자 곧 생 산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선광장설비들에 만가동을 보장 하여 질좋은 원료를 원만히 생

산보장하고있다.

날이 앞당겨지고있다.

전기설비생산단위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

소재준비직장에서는 차단기 를 비롯하여 전기설비제작에 필 요한 각종 소재와 부분품들을 제때에 가공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그리고 서 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중 유가열로의 연소률을 높이기 위 한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려 좋 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제관직 장에서는 전기설비제작에 필요 한 제판품들을 생산보장하면서 설비보수를 위한 용접봉생산에 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고압 기구청년직장에서는 로동자, 기 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 고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여러

종류의 전기설비들을 제때에 조

립완성하고있다.

특히 전기기구분공장의 일군 들과 로동자들은 새 기술혁신안 들을 적극 받아들여 전기기구들 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 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주조직장과 절연물직장, 점화 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 서 맡은 과제수행에서 련일 혁 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 화를 실현하기 위한 줄기찬 투 쟁을 벌려나가고있다.

기술발전과의 기술자들과 경 성공업대학의 교원들, 3대혁명 소조원들을 비롯한 기술집단은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한 굴 식소성로건설을 끝내기 위한 마 지막돌격전을 벌리는것과 함께 가열로들의 기술개건과 현수애 자성형기의 콤퓨터화실현에 박 차를 가하고있다.

산 조 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차 가 평 세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재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건설에 필요한 건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차가평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와 제1차 건설부문일군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세멘트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 는 원료와 연료, 부가물을 넉 넉히 확보하여 세멘트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석회석생산 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보장, 수 송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었 다. 이와 함께 많은 량의 질좋은

멘 성로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 있다.

록 하였다. 석회석광산의 로동자들은 발 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자동차수송과 전차수송을 병행 시키면서 석회석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매일 평균

과

1. 7배로 늘이고있다. 광산의 로동자들은 지금 석회 석생산을 늘이기 위한 8만산대 발파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 고있다.

공장일군들은 소성로의 만가 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예 견성있게 세우며 석탄을 더 많 이 실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세 워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장마철전으로 올해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전량 을 실어들이기 위한 수송조직 내화벽돌을 확보하여 회전식소 과 지휘를 실속있게 해나가고 의 긴밀한 련계밑에 공장구내철

트 공 장 에

휘 를

공장에서는 세멘트생산을 최 대한으로 늘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의 오랜 기능공들은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세멘트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남 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이들은 크링카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 서 보장하는것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국가과학원 자동화연 구소의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소성공정의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치고있다. 공장에서는 많은 량의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석탄과 세멘트수 송에서 보다 큰 경제적실리를 얻기 위해 해당 부문 일군들과

길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리고 용량이 큰 변압기를 비롯한 전기설비들을 세멘트생 산공정들에 합리적으로 조절배 치하여 대형설비들의 능력을 기술일군들과 공무, 동력직장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고

>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 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유 리한 생산조건이 마련되고 올해 세멘트생산계획을 수행할수 있 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장,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 장, 장자산소년단야영소개건공 사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 들에 질좋은 세멘트를 뎌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

특파기자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절세위인의

4월의 봄, 만물이 약동하는 이 소생 의 계절과 더불어 온 겨레의 가슴속에 사무쳐오는 추억과 불타는 열망이 있 다. 그것은 민족분렬의 첫 시기 전민족 적인 통일대회를 마련하시여 미제와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에게 철추를 내 리시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길을 개척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 의 령도업적에 대한 가슴뜨거운 회억 과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드팀없는 신

념이고 의지이다. 그 신념과 의지를 안고 온 겨레는 4월남북련석회의가 열리던 나날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그 자욱을 숭엄히 돌이켜 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 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 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 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 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돌이켜보면 해방된 조국땅우에 부강 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 리 민족의 투쟁은 첫걸음부터 남조선 을 무력으로 강점한 미제와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였 다. 주체 3 6 (1 9 4 7)년 9월에 들어 서면서 나라안팎에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 통일 적인 민주주의림시정부를 수립하기 위 한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파탄시키고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남조선에 단독괴뢰정부를 조작하기 위해 조선문 제를 유엔에 끌고갔다.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조성된

엄중한 정치정세와 민족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 6 (1 9 4 7)년 1 0월 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남북협상방안에 대하여》에서 민족 분렬의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독정부》조작책동의 범죄적본질과 위 험성을 예리하게 까밝히시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범죄적책동을 짓부 시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 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들의 런석회의형식의 남 북협상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이야말 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민족대단결과 통일전선운동의 불멸의 업적과 경험을 쌓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운명의 구원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제시 하실수 있는 현명한 방침이였다.

하지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우리 민족을 분렬시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미제의 꼭두각시기구인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반대배격하 는 투쟁이 북남인민들속에서 세차게 벌어지자 미제는 1948년 2월 《유엔소총회》에서 남조선에서의 《단독 정부》조작에 관한 《결의안》이라는것 을 강압통과시키였다. 미제의 각본에 따라 리승만매국역적은 《남쪽만이라 도 림시정부를 조작》하자는 악명높 은 《정읍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고 《단선단정》놀음에 적극 매달렸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주체 3 7 (1 9 4 8)년 3월 2 5일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 원회 제26차회의에서 남북련석회의 를 4월에 평양에서 열것을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에 제의하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남북련석회의소 집제안은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적극적인 찬동을 받았다.

그러나 남북현석회의가 소집되기까 지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련석회의 를 파탄시키기 위한 미제와 그 앞잡이 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지난 날 조국과 민족앞에 저지른 죄와 뗫뗫 치 못한 과거때문에 북행길에 오를 용 단을 선뜻 내리지 못하는 인사들의 심 리적고민은 컸다. 그들은 회의소집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회담의 희망은 매우 박약한것》이라고 반신반의하면 서 선듯 걸음을 내짚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에 붙 이는 원칙에서 손잡고나갈데 대한 립장 을 천명하시고 남조선의 모든 민주인사 들과 함께 우익민족주의자들까지 련석 회의에로 부르는 편지를 보내시였다.

이때 김구, 김규식과 같은 우익민족주 의자들이 받아안은 감동은 매우 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 3 7 (1948)년 3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몸소 김구의 현락원을 만나 주시고 반공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일 은 다 백지화한다고, 과거불문의 원칙 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전통 이라고 명백히 말씀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에 매혹된 우익민족주의자들은 옹졸했던 자기들을 뉘우치고 런석회의 에 참가할 용단을 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그때를 회상하시며 만일 우리가 감정에 사로 잡혀 처신을 극단적으로 하면서 민족 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나갔 더라면 통일전선은 지상공론으로만 남 아있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 시면서 통일전선을 위한 우리의 변함 없는 노력과 성의앞에서는 김구와 같은 완고한 반공인사도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였다. 정녕 우리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넓

은 품이 있어 김구, 김규식, 조소앙, 최 동오, 엄항섭, 조완구, 김월송 등 당대 의 민족주의자들모두가 통일전선의 기발아래 평양으로 모여들었다. 당시 미국의 한 작가는 《리승만을 제외한 남조선에 있는 우수한 인물들이 거의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였다.》고 하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반미구국 의 기치밑에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 하기 위하여 해방후 처음으로 북과 남 의 각계층 애국력량이 통일전선에 합

류한 폭넓은 민족단합의 마당이였다. 주체 3 7 (1 9 4 8)년 4월 1 9일 풍치수려한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 들의 참가하에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 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 두번째 날인 4월 21일 《북조선정치정세》 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보고에서 조선의 분렬을 꾀 하는 미제의 책동을 전면적으로 폭로하시고 망국적인 《단독선거》를 저 지파탄시키고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 적중앙정부를 세워 조국통일을 실현하 는것이 민족최대의 과업이라고 하시면 서 이 거족적인 투쟁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 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민족자주정신이 투철하고 애국애족 의 의지가 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는 전체 회의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였고 그들의 절대적인 지 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회의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보고 정신을 반영하여 남조선에서의 《단독 선거》를 반대배격하며 통일정부를 수립할데 관한 결의를 담은 《조선정치 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격문 《전조선 동포에게 격함》이 채택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남북런석회의 가 끝난 다음 5월 2일 우리 당의 책임간부들과 김구,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의 주요정당, 사회단체 지도급 대표들과 함께 쑥섬에 나가시여 협의회 를 마련하시였다. 협의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대단결방침을 다시 금 천명하시고 남북련석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구국통일방침과 민족통일전선 실혀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만나뵈오면 뵈올수록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민족애와 고결한 인품에 완전 히 매혹됨을 금할수 없었다.

김구는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오랜 기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온 《상해림시정부》의 인장을 꺼 내놓으면서 어버이수령님께 《장군님, 조선이 정말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합 니다. 조선을 이끄실분은 장군님뿐이 십니다. 나는 모든것을 장군님께 맡깁 니다. 》라고 절절하게 말씀올리였다. 그것은 곧 우리 겨레모두의 심정이 였고 신념의 맹세였다.

참으로 력사적인 4월남북력석회의는 애국심을 원동력으로 하여 온 겨레가 통 일전선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거족적인 반미구국투쟁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 해나가는 획기적국면을 열어놓은 민족 사적사변이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특출한 령도

해방후 조국통일운동의 그 복잡다단 한 초행길에서 넓은 도량과 통일애국 의 숭고한 뜻으로 과거를 불문하고 온 민족을 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묶어세 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은 오늘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위업수행에로 힘있게 고무추 동하고있다.

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였다.

태양절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딸리아 하는 가장 걸출한 위인, 인류 에서는 집회와 도서 및 사진전시 회가, 프랑스에서는 집회가, 로 하신분이시다. 므니아에서는 련합토론회가

0

01

히

0

T

01

5일과 7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 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 한 도서들, 우리 인민이 강성 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 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 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이딸리 아지부 공식대표 크리스띠안 삐베따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 인 선군정치로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나가시 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새 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데 대하여, 인민대중중심 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 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 부위 원장 기 듀프르는 다음과 같 이 연설하였다. 태양절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뜻깊은 날이다. 김일성주석은 전세계가 공인

자주위업실현에 특출한 공헌을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 선인민이 기어이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며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리라고 확신한다. 태양절경축 로므니아준비 위원회 위원장인 로므니아사 회주의동맹당 위원장 꼰쓰딴 띤 로따루는 다음과 같이 말

기 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희세의 ██ 정치원로이시다.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존엄높은 인민으로, 조선은 강대한 사 회주의국가로 빛을 뿌릴수 있었다.김일성주석의 업적 은 만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다. 태양절경축 로므니아준비 위원회 부위원장인 로므니아 근로자협회 위원장 다니엘 데디우는 다음과 같이 토론 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은 미일 두 제 국주의를 타승하고 나라의 독 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오늘 조선이 정 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 를 차지하고 경제강국을 향하 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주석의 탁월한 령도 에 의하여 마련된 튼튼한 토 대가 있기때문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 그대로이신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곧 아시

아지역을 행각한다고 한다. 오바마의 이번 행각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실행의 일환으로서 가뜩이나 불안한 이 지역에 대결과 핵군비경쟁의 검 은구름을 몰아오는 반동적이며 위험천만한 행보이다.

오바마행정부가 2011년말에 아시아태평양《재균형》이라는 이 름으로 책정한 이 전략은 본질 에 있어서 이 지역에 힘을 집중 하여 경쟁자들을 포위억제하고 저들의 정치군사적우위를 계속 부지해보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저들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의 패권주의적본질을 가 리우고 유라시아대륙의 큰 나라 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우리의 《핵위협》과 《미싸일위협》, 그 무

슨 《도발》을 구실로 내들고있다. 3월초 미국방성이 발표한 《4 개년국방검토》보고서에서도 아 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해군무력의 60%를

정 보 원 원 장 의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

주권련대가 15일 《남재준 파면

없는 사과는 기만이다》라는 제

론평은 서울시공무원간첩사

건과 관련하여 박근혜와 정보원

원장 남재준이 《송구스럽다.》

느니, 《사과》니 뭐니 한데 대해

비난하였다.일개 정보원 차장 의 사표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각계의 비난을 무마시키려는

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한다는 것 등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도발》과《위협》을 주요하게 걸 고들었고 얼마전 미국방장관이 우리 주변에 기여들어 2017년까 지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배비한다는것을 발표하면서도 우

리의 《침략》을 운운하였다. 2월 중순 미국무장관이 남조선 과 중국을 돌아다니며 우리 국방 위원회 중대제안과 북남고위급접 촉실현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미국-남조 선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할것이라 고 하면서도 우리의 핵개발추진과 《도발》가능성을 거들었다.

이번에 오바마도 상투적으로 우리를 걸고드는 메가폰을 들고 오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지역들중에서 유독 조선반도에 서 제일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 려놓고 그 회수와 규모를 부단 히 늘이면서 정세격화의 악순환 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리유

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계속 자극 하여 핵억제력강화와 군사적대응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우리에게 《호전》감투를 씌우고 저들의 군사 적책동을 합리화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 국의 무력증강과 합동군사연습 은 합리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지 역나라들의 전에 없는 공개적인 반발에 직면하고있다.

더우기 미국이 얼토당토않은 《호전》감투를 씌우는것이 두려 워 나라와 민족의 안전에 관한 근본문제에서 한치라도 양보하 거나 그 어떤 요행수를 바랄 우 리가 아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그에 단호히 대처할수 있는 정 정당당한 자위적억제력을 백방 으로 다지기 위한 노력에 박차 를 가하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정책적립장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아시아태평 양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면서 그 구실로 우리의 국익을 계속 희생시키려든다면 종당에는 미 국자체에도 좋지 못한 후과가

초래될것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은 당면해 서는 6자회담의 재개와 조선반도 비핵화의 실현전망에 극히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며 나이 가서는 불피코 지역전반에서의 핵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될것이다.

중동핵문제와는 비할바없이 파괴적인것으로 될 동북아시아 의 핵군비경쟁은 결국 오바마가 제창했던 《핵무기없는 세계》건 설구상자체를 통채로 말아먹게 될것이다.

오바마행정부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실 지 미국의 궁극적리익에 맞는것 인지 랭철하게 따져보는것이 좋 을것이다.

주체103(2014)년 4월 21일



소굴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모략의

지난 14일 남조선검찰이 서울시공무 원간첩사건증거조작에 대한 최종수사결 과를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괴뢰정보 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들고나왔던 《위력한 증거》들이 전부 거짓과 모략으 로 일판된 완전한 날조품이라는것이 밝 혀졌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피 뢰집권세력에 대한 각계의 분노가 치솟 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정보원패거리들은 지 난해 12월 《탈북자》 출신의 공무원에게 《북에서 훈련받은 간첩》혐의를 들씌우고 그것을 립증한다고 하면서 증거들을 마구 꾸며냈다. 모략군들은 돈으로 매수한자들 을 내세워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다 못해 나 중에는 3국의 공문서를 제멋대로 위조하 여 써먹다가 국제적망신까지 당하였다. 허 황하기 짝이 없는 이런 놀음은 반공화국모 략과 파쑈폭압의 소굴인 괴뢰정보원의 범 죄적정체를 다시한번 여지없이 드러내보 ^{녀주고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증거조작은 《유 신》독재시기 극악한 파쑈모략기구로 악명 떨친 중앙정보부의 치떨리는 죄악을 그대 로 답습한것으로서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자체가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노린 유치한 모략이다. 권 력의 시녀인 괴뢰정보원은 《정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들을 조작 하여 진보세력들을 우리와 강짜로 런결 시켜 탄압하며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 리려고 발광해왔다.

현 괴뢰정권이 등장한 이후만 놓고보 아도 정보원패거리들은 북남수뇌상봉담 화록사건, 내란음모사건 등 전대미문의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을 꾸며내여 북남판 계파괴와 동족대결, 진보세력말살에 피눈 이 되여 날뛰였다. 정보원깡패들이 서울 시공무원간첩사건을 조작한것도 남조선 사회에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고 취하고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는 동 시에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을 《종북》으 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위한 구실 을 마련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문제는 이런 용납 못할 모략사건의 장 본인들이 범죄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이번 최종수사결과발표놀 음은 말그대로 산이 들썩하더니 골안의 쥐 새끼 한마리라는 속담을 방불케 한다.정 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니, 조사니 하고 법석대던 검찰은 응당 심판대에 올려세워 야 할 정보원 원장 남재준은 무혐의처분 으로 빼돌리고 몇몇 송사리졸개들만 제물 로 삼았다.

그럴수밖에 없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 는 게편이라고 정보원과 같고같은 권력의 시녀인 검찰이 어떻게 달리 처신하겠는가.

괴뢰검찰이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에 나 선것도, 이번에 최종수사결과라는것을 발표 한것도 각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그 진 상을 더이상 숨길수 없었기때문이다. 남조선검찰당국의 최종수사결과발표놀

모독이며 파쑈모략군들에 대한 로골적인 비호두둔이다. 남조선 각계에서 《박수받지 못할 수사결 과》, 《남재준을 살리기 위한 허술한 조사》, 《꼬리자르기》등의 비난과 조소가 터져나

음은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온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근본책임은 괴뢰 집권자에게 있다. 지금껏 남조선에서 정 보원선거개입사건 등으로 남재준을 즉각

해임시킬데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거세

알륵과

게 울려나왔지만 그때마다 귀를 틀어막 고 극구 싸고돈것이 바로 박근혜이다.이 번에도 그는 《송구스럽다.》 느니 뭐니 하 며 《사과》놀음을 벌리면서도 《유신》잔당 이며 자기 측근주구인 남재준에 대해서 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남조선집권 자의 기만적인 《사과》는 남재준을 살려 준 검찰의 뻔뻔스러운 처사와 조금도 다 를바 없다.

남조선집권자로 말하면 남재준과 같은 극악한 파쑈광을 정보원 원장자리에 올려 앉히고 《정권》 안보에 기승을 부리도록 배 후조종해왔으며 각계의 한결같은 정보원 해체주장에는 아랑굣없이 기만적인 《개혁》 의 간판밑에 이 모략의 소굴을 더욱 파쑈 화하고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장본인이 다. 집권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보호를 받 은 정보원패거리들이 앞으로 북남관계의 파괴와 진보세력탄압에 더욱 열을 올릴것 은 불보듯 명백하다. 이런 속에 6월에 있 게 될 지방자치제선거가 지난 《대통령》선 거와 같이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이 총발동 된 부정선거로 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 할수 없다.

현실은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지향하 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파쑈권력 기구들을 끼고 독재체제수립과 북남대결 에 광분하는 보수당국의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 쟁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절박하게 요 구하고있다.

괴뢰패당이 아무리 악의 소굴인 정보원 을 유지강화하려고 획책해도 《유신》독재 부활에 맞서 굴함없이 싸우는 남조선인민 들의 정의의 투쟁은 절대로 가로막을수

박 철 준

욕 타임스》에 미

국대통령이 대만

에 대한 지지를



이번 총회전야

돌이켜보면 인

지 서 유엔기후변화 정부간위원회총 회가 있었다. 각 국의 수많은 과 학자 등으로 구 성된 유엔기후변 화정부간위원회 는 세계기후와 관련한 연구성과 를 종합하여 평 가한다. 에도 지구온난화 0 실태, 그 대응책 을 핵심으로 서 술된 보고서가 발표되였다. 류가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돌 리기 시작한지도

화 방 지

적지 않은 세월 이 흘렀다. 수많 은 국제회의연단들에서 환경보 호, 지구온난화방지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과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오존층 보호를 위한 원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등 국제적인 협정들도

채택되였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문제 다시말 하여 지구온난화문제가 해결되

파면을 요구 당국의 태도는 도마뱀의 꼬리

자르기와 같은 연극에 불과하 다고 까밝혔다.

국민무시, 민주말살책동을 더 이상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남재준을 즉시 파면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만일 이를 거역 할 경우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현 《정부》를 심판할것이라고 론 평은 경고하였다.

리인 온실효과가스방출문제를

놓고보자. 1997년에 온실효

과가스방출을 억제할 목적밑에

교또의정서가 채택되였다. 하지

만 지금까지도 각국이 비준하여

의정서에 박아넣은 온실효과기

스방출량삭감목표는 종이장의

수자로 남아있다. 지어 어떤 나

라들에서 그 량은 늘어났다. 결

국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농도는

낮아지는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집행서

기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평균

농도가 4 0 0 ppm을 넘어선것

이 인류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

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상

기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사실상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기후변화로 경제장성률이 떨

어져 해마다 1조 2 000억

2030년에 가면 그것은 2

그뿐이 아니다.세계적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1년부터 2011년까

지 3 7만명에 달하였다. 도처

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난민수

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과학

자들은 만일 기온이 20세기말

보다 4℃이상 높아지면 세계적

인 식량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물자원확보경쟁이 치

렬해지는 등 분쟁위험이 높아질

말로만 지구온난화방지에 대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경고하였다.

후과는 파국적이다.

US\$의 손실을 보고있다.

배로 늘어날수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지 못하고있는것이다. 해 떠들 때는 지났다. 시시각각 지구온난화방지의 관건적고 눈앞에 닥쳐오는 현실은 참으로

> 심각하다. 표면상 기후변화문제는 환경 문제이다. 허나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첨예한 정치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 온실효과가스방출량삭감을 둘러싸고 서방과 발전도상나라 들사이의 마찰이 가라앉지 않 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제 할 바는 하지 않고 발전도상나라들 의 온실효과가스방출량삭감문 제를 시비해나서고있다. 빠개놓 고 말해서 그들은 남을 걸고늘 어질 처지에 있지 못하다. 왜냐 하면 지구온난화가 무지막지한 개발과 더불어 대량적으로 방출 된 온실효과가스에 의해 산생되 였기때문이다. 더우기 미국은 세계적인 원유소비국으로서 마 땅히 지구온난화방지사업에 앞

장서야 한다. 많은 경우 화석연료에 의거한 공업구조로 생산이 진행되고있 는 현시점에서 온실효과가스방 출량삭감이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눈앞의 경제적리익만을 타산하 며 여기에 등을 돌려대는것이야 말로 인류는 물론 자기자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있 재앙속에 몰아넣는 어리석은 처

사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것은 지 구에서 살아가는 수십억의 인구 | 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 가 발벗고나서야 할 초미의 공 협상에 참가한 나라들의 대다수 동과제이다.

이 좀처럼 진척 되지 못하고있 다. 얼마전 협정체결을 위한 미 하여왔다. 경제력이 약한 이 나라 차와 판련된것이였다. 만일 일본 배에서 찾고있다. 미국이 환태 일사이의 쌍무회담이 열렸으나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체결

소득없이 막을 내리고말았다. 그보다 앞서 싱가포르에서 진행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 결을 위한 참가국들의 회담에서 도 각국은 의견상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내 세운 목표는 무역에서 관세를 없애고 자유화를 실현하여 지역 경제를 추동하는것이다. 이에 현 혹되여 아시아와 아메리카, 오세 안주 등 태평양연안나라들이 협 상마당에 뛰여들었다.그러나 2005년에 출현한 이 협정안 은 오늘까지도 체결단계에서 제 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원인은 다 른데 있지 않다. 공동의 노력으 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참 가국들의 기대와는 달리 환태평 양경제동반자협정안이 특정세력 의 불순한 목적추구의 공간으로

악용되고있는데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 을 주도하는것은 미국이다. 미국 은 무역과 농업, 제조업, 봉사업 등에서의 자유화를 협정체결을 다. 관세는 물론 비관세장벽도 모 두 없애버림으로써 시장을 완전 히 개방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런 는 수십년간 외자도입이나 수출 본사기자 구도형의 경제발전을 기본으로 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시장을 완 전히 개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 는가. 미국에 먹히우고만다. 가깝다고 하는 동맹국도 레외

로 되지 않고있다. 미국은 일본이 농업분야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이 특별히 모를 박아 그 개방을 요구하는 쌀 을 비롯한 5개 항목은 일본이 판 세철페의 레외대상으로 삼고있는 주되는 항목이다. 하지만 미국은 저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내리먹이 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에 대한 미국자동차수출을 가로막는 장벽 들을 허물라고 강박하고있다.

사실 자동차수출은 미일이 오 래전부터 공방전을 벌리고있는 분야이다. 자동차는 미국공업의 상징으로 되여있었다. 제2차 세 계대전후 미국자동차생산은 발 전하여 그 누구도 미국자동차시 장을 뚫고들어갈수 없었다.

1970년대에 와서 사정은 달라졌다. 국제적인 원유위기로 석유가격이 급격히 뛰여오르자 세계자동차시장에서는 미국제자 동차에 비해 연료소비가 적은 일 본제자동차에 구매자들이 쏠렸 다. 자동차시장에서 막대한 손해 를 보게 된 미국은 일본에 자동 차수출을 줄이라고 압력을 가하 였다. 이렇게 시작된 미일분쟁은 1994년에 절정에 달했다. 당 시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는 65 6억US\$로서 그의 60%가 자동

자동차시장을 1%만 열어놓아도 미국은 큰 리득을 보게 되고 일 본은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된 다. 미국은 자동차시장을 개방하 도록 일본에 강박하면서 제재까

떠도는

지 떠들어댔었다.

자동차수출을 둘러싼 분쟁에 서 미국은 《손우동맹자》라는 지 위에서 항상 고자세를 취하였고 일본은 성난 상전을 달래면서 제 리속을 채웠었다. 랭전종식 후 수직관계속에 흘러온 미일분 쟁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 다. 압력과 굴종의 관계가 압력 과 반발의 관계로 변화되는 추 이를 드러냈다.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에서 도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강하 게 거부하고있다. 일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자국의 리익을 해치면서까지 회담탁에 나앉지 않겠다는것이다. 그만큼 《유일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며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다스리던 미국 의 지위가 허물어져가고있다.

날로 악화되는 정치경제위기에 휘감겨 림종의 가쁜숨을 몰아쉬 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시장쟁탈 을 위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치렬해지고있다. 몇해전에 터진 금융위기의 여

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미 국은 침체상태에 빠진 저들의 경제를 추켜세우는 출로를 아시 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경제적지 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을 위 한 쌍무적 및 다무적회담들에서 저들의 기업이 지역시장을 뚫고 들어가는데서 방해로 되는 장벽 들을 모두 허물것을 강박하고있 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아시 아태평양지역을 저들의 상품시 장으로, 자본투하지로 전변시키 며 나아가서 지역경제를 미국독 점자본에 복무하는 하나의 부속 물로 만들자는것,이것이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을 통

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이다. 음흉한 미국이 추구하는것은 단순히 경제적리익만이 아니다. 미의회조사국의 한 연구원은 자 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수출증대와 국내일자리조 성을 모색하고있는것은 사실이 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 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사실이 그렇다. 지금 미국은 아시아지역 에서 잠재적인 위협국은 중국이 라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현실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미 국과 신흥세력인 중국의 력량관 계는 날이 감에 따라 달라지고있 다. 채무문제만 놓고보아도 미국 은 세계최대의 채무국인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있는 채권대국이다. 보 다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는것은 치명적약점인 채무문제가 언제 가도 해결될수 없는 악성질병이 라는데 있다. 오죽하면 한때 《뉴

포기하는 대신 1 조US\$이상 되는 빚을 면제해 달라고 중국에 제기하는 결단을 내리라는 기사까지 게재되였겠 는가. 《미국이 갈수록 취약해지 고 중국은 더욱 강력해지고있 다. 》는 위구심이 미국인들을 불 안에 떨게 하고있다. 그들은 중 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화되 면서 미국의 전략적리익을 침해 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하여 이 나라를 고립 시키고 영향력을 억제시켜 아시 아태평양지역을 저들의 손아귀 에 틀어쥐자고 타산하고있다. 그 것이 다름아닌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이다. 미국은 전망적으 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 는 경제쁠럭을 정치, 외교, 군사 동맹으로 확대시켜 그것을 지역 의 대국들을 견제하고 세계제패 전략을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써 먹으려 하고있다.

다무적자유무역협정인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몇몇 나 라들의 강요나 의사에 따라 체 결되는것이 아니다.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공동의 요구우에 저들의 리익을 올려 놓는 세력이 날뛰고 신뢰와 협 조보다도 대결분위기가 고취되 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 결협상에 대하여 광범한 여론 이 회의감을 표시하는것은 당

연하다.

본사기자 배금희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41O62O (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사회주의교양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